

호르무즈 해협에 증시·금리·환율·반도체까지 '목줄' 잡혔다... 예측불가 韓 경제

국제 유가 급등락...뉴스 헤드라인 따라 국내 경제 충격과
우회 항로 등 주목받지만...여전한 '전쟁 장기화' 우려
장기화시 증시·금리는 물론 반도체 등 실물경제 타격 불가피
"지난해 전망 수정해야"...예측 무의미, 대응에 집중 목소리

“지금은 이벤트 driven(Event-driven:사건 주도) 장세도 아니고, 헤드라인 driven(Headline-driven:뉴스 주도) 장세다. 예측이 무의미하다. 장기 전망은 자제하고, 그때 그때 대응만 한다는 생각으로 시장을 지켜보고 있다.” _ 한 증권사 프랍 트레이더

지난 9일 미국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가격은 장중 배럴당 120달러를 돌파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여파로 공급 부족 우려가 극에 달했던 2022년 3월 이후 처음이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선언하며 주변국과 상선을 공격하고 있다는 뉴스에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6% 가까이 급락했고, 원달러환율은 1480원대로 치솟았다.

11일에는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조기 종결과 세계 주요 7개국(G7) 전략비축유 공동 대응을 시사하며 배럴당 90달러대로 안정되는 모습이었던 WTI 가격은 미군 군함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을 보호하고 있다는 뉴스에 70달러대까지 급락했다가, 백악관이 이를 전면 부인하며 다시 80달러대 중반으로 치솟았다.

지난달 28일 발발한 이란 전쟁의 여파가 국내 금융시장은 물론, 실물 경제로까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전쟁이 조기 종결 될 것이란 낙관론과 미국이 관여했던 이전 중동 전쟁과 비슷하게 수렁에 빠질 것이란 비관론이 교차하는 가운데, 뉴스 속보 한 줄에 조 단위 자금이 움직이는 예측불가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핵심 변수는 결국 이란과 오만 사이에 위치한 호르무즈 해협의 정상화 여부다. 하루 평균 1900만배럴의 원유가 통과하는 요충지로,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출량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지금의 극심한 변동성은 결국 국제 유가 변동성에 따른 후폭풍이라는 점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정상화가 '언제, 어떻게' 되느냐에 관심이 모인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지난 9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원유 수출량은 400만배럴로 평시의 20% 수준까지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일 평균은 160만배럴이었다. 일부 선박이 트랜스폰더(위치 신호 장치)를 끄고 몰래 항행을 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긴 했지만, 실제로 수출량 역시 회복되고 있음이 일정 부분 확인된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동서파이프라인을 통해 서쪽의 안부르 원유를 이송, 홍해를 통해 원유를 수출하는 방안도 실현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10일 현재 안부르 최소 25척의 유조선이 이동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연방(UAE) 역시 푸자이라 터미널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 원유를 수출하는 방안을 준비중이다.

한 증권사 시황 담당 연구원은 “배럴당 100달러 넘게 급등했던 국제 유가 가격이 80달러선까지 안정된 건 호르무즈 해협 대체 수송망이 가동되기 시작했고, 미국이 해협 봉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피력했기 때문으로 판단한다”며 “다만 실제로 원유 물동량이 이전 수준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는 지속적으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부 상품시장 관계자들은 안부의 원유 수출 능력이 기대치인 하루 700만배럴이 아니라 하루 300만~400만배럴에 불과할 것이라는 회의론을 제기하고 있다.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예멘 후티 반군 역시 ‘홍해 항로 및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재개하겠다’고 밝힌 상태라 안부가 안전한 우회항로가 아니라는 인식도 적지 않다.

이란이 강경파인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차기 지도자로 선출한 것은 장기전 체제를 준비하는 움직임이란 관측이 주류다. 이란은 제공권과 제해권을 뺏기긴 했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상군을 투입하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정권을 유지할 가능성은 크다는 평가다. 이란이 주변국 에너지 인프라를 간헐적으로 공격하며 기뢰 등으로 호르무즈 해협 통행을 방해할 경우 전쟁은 장기전 양상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국내에 미칠 영향이다. 에너지 수입국인 한국은 국제 유가로 인한 에너지 위기에 취약한 구조로 평가받는다. 실제로 전쟁 발발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에서만 10조원을 순매도했다. 전쟁 이후 처음 장이 열린 3일 하루에만 5조4000억원을 내다팔았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한국 전력 발전 중 천연가스(LNG) 비중이 30%에 달하는데, LNG 수입선이 막히면 반도체 생산에도 차질을 빚지 않겠느냐는 해외 투자자 문의가 있었다”며 “헬륨 등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특수가스 역시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이라 사태가 장기화하면 국내 핵심 산업인 반도체에도 영향이 없을 순 없다”고 말했다.

에너지 가격 상승은 금리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지난 9일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장중 3.80%까지 치솟으며 2023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2월 초 금리 급등 당시 최고치보다도 높은 수준이었다. 에너지 가격 급등이 물가 불안을 초래하며 기준금리 인하는 커녕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신중론이 득세한 까닭이다. 2월 들어 안정화 국면이었던 환율 역시 단숨에 1500원선 근처로 치솟으며 수입 물가 상승에 대한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

한 증권사 전략 담당 연구원은 “이란 전쟁으로 인해 지난해 말 경제 및 증시 예측을 전면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당장 국제 유가가 이전 수준으로 돌아오는 데 1년 이상 걸릴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라 의견을 내기도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3일 자료를 통해 국제 유가 연평균 150달러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올해 연간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수준인 연 1%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자물가는 2.9%포인트 상승하고, 경상수지는 767억달러(약 113조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블루아울에서 블랙록까지…

사모대출 환매 확산 ‘탄광 속 카나리아’ 될까

미국 사모신용 시장에서 대출 펀드 환매 요청이 연쇄적으로 늘어나며 유동성 불안이 번지고 있다. 수면 아래에서 상황이 악화돼 온 가운데 이번 사모대출 환매 사태가 유동성 위기의 ‘탄광 속 카나리아’(위기의 전조 증상)가 될지 전 세계 금융시장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특히 블랙스톤, 블랙록 등 글로벌 대형 운용사로까지 환매 압력이 확산되면서 사모신용 시장 전반에 대한 경계감도 커지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불안이 확산된 계기는 블루아울캐피탈의 환매 영구 중단 발표다. 앞서 2월 19일 미국의 대형 사모대출 운용사 블루아울캐피탈은 자사 펀드 'OBDC II'의 환매를 영구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국내에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4일 해외 사모대출 펀드 관련 증권사 임원들을 불러 리스크 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가 IMA 운용 과정에서 해외 사모대출 자산을 편입하고 있는 점에 대한 우려도 나온 것으로 알려진다.

블루아울은 국내 금융사들과도 거래가 적지 않은 운용사로, 연기금·공제회보다는 증권사 등 금융사와의 접점이 더 많은 곳으로 전해진다. 블루아울과 거래 관계가 있는 국내 연기금이나 공제회 등 기관투자자들도 문제가 된 펀드에 직접 투자하지 않았더라도 BDC(중소기업 대출 투자회사) 투자 포트폴리오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연기금 관계자는 “사모대출 시장에서는 동일 기업에 여러 운용사가 동시에 대출하는 구조가 적지 않아 특정 차주에서 부실이 발생할 경우 여러 펀드가 동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른바 ‘오버래핑(overlapping) 리스크’가 존재한다”며 “AI 투자 쏠림 현상은 사실이지만 현재로서는 이를 버블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테크·SaaS 기업에서 의미 있는 부도 사례도 아직 본격적으로 나타난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블루아울·블랙스톤·블랙록 잇단 환매 이슈 글로벌 사모신용 시장 유동성 경계감 확대 2007년 BNP파리바 사례처럼 ‘위기 전조’?

다른 연기금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며 “국내에서는 BDC 시장이 아직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형성된 단계도 아니고 지난해부터 개인 대상 상품 위주로 소개된 수준이라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가 된 BDC에는 별도로 투자한 바 없지만 환매 중단 사태 이후 내부적으로 관련 투자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는 상황을 파악하며 모니터링하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블루아울 사태 이후 사모신용 시장 곳곳에서 균열 신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이달 3일 세계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인 블랙스톤의 비상장 사모대출 펀드 'BCRED'에는 자산의 7.9%에 해당하는 환매 요청이 들어왔다. 환매 요청 액수는 총 38억 달러(약 5조6000억원)에 달한다.

6일에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운용하는 사모신용 펀드에서도 환매 압력이 커지며 자금 인출 제한이 단행됐다. 260억 달러 규모의 HPS 기업대출 펀드(HLEND)가 이번 분기에만 순자산가치(NAV)의 9.3%에 달하는 환매 요구를 받았으나 분기 환매 한도인 5%까지만 인출을 허용하고 나머지는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2022년 출시된 이 펀드가 환매를 제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별 운용사에서 불거진 환매 압력이 업계 최대 업체로까지 확산됐다는 점에서 사모신용 시장 전반의 심리 위축이 본격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블루아울 기술 BDC 펀드와 블랙스톤 주력 BDC 펀드인 BCRED에서도 각각 NAV의 15.4%, 7.9%에 달하는 환매 요청이 쏟아진 바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사태가 과거 금융위기의 전조와 유사한 흐름인지에도 주목하고 있다.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펀드의 환매 중단이 위기의 신호탄이었다. 같은 해 8월 BNP파리바가 서브프라임 관련 펀드의 환매를 중단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화한 바 있다.

블루아울 개별 사태 당시만 해도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은 낮게 보는 시각이 많았다. 운용사의 투자 전략상 발생한 문제일 뿐 자산 가치가 급락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금융위기나 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될 사안은 아니라는 평가가 우세했다.

하지만 이후 블랙스톤과 블랙록 등 글로벌 대형 운용사로까지 이슈가 확산되면서 사안을 바라보는 시장의 시각도 다소 달라지고 있다. 사모대출 시장 내 구조적 우려 요인이 존재한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모대출 시장은 그동안 급증한 인공지능(AI) 자본지출의 주요 자금출 역할을 해왔다. 소프트웨어와 데이터센터는 대표적인 투자 분야다. 그러나 이란 전쟁 이후 위험자산에서 자금을 회수하려는 기관투자자와 고액 자산가 수요가 늘어난 데다 AI 기술 변화로 소프트웨어 업종 경쟁력이 약화된 데다 데이터센터 투자 과열에 따른 부실 우려도 커지면서 자금 이탈이 나타나고 있다.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 사모대출 펀드에 투자한 보험사 등 금융기관과 대출을 받은 기업으로 위험이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크레딧 펀드에서 위기가 시작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매크로와 신용 사이클 부담이 크레딧 시장을 통해 드러나는 상황에 가깝다”며 “BDC는 은행처럼 수신 기능을 가진 구조가 아니어서 뱅크런 형태의 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그동안 공격적으로 언더라이팅했던 대출들이 앞으로 계속 문제로 드러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이상은 기자



삼성전자·SK하이닉스 합산 영업이익 300조 전망, 중동사태에 흔들리나

AI 붐 슈퍼사이클 여전한데 양사 주가는 -25% 1분기 실적이 작년 한해 변동보다 클 전망이나 무시 어려운 중동사태...공급망 혼란까지 걱정 AI도 반도체도 전력 인프라 위에 세우는 산업 전쟁 장기화 따질 동안 주가 변동성도 커질 듯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위로 중동 전쟁이라는 변수가 드리우고 있다. 올해 양사 합산 영업이익은 300조원을 가뿐히 넘길 것으로 전망되지만 글로벌 에너지 쇼크가 공급망 문제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쟁이 길어지면 경기와 무관할 것 같던 전방 인공지능(AI) 투자와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 역시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주가는 지난달 말일 각각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뒤 이달 들어 거센 조정을 받고 있다. 9일 기준 양사 주가는 각각 최고점 대비 25% 이상 하락한 상태다. 같은 기간 코스피가 최고점 대비 19% 이상 하락한 것과 비교하면 변동폭이 다소 큰 상황이다.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나 양사 실적만 놓고 보면 지금 주가를 이해하기 어렵다. 이달 들어서도 메모리 가격 인상은 변함없이 진행 중이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예상 실적 눈높이도 여전히 상승세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번 분기에만 각각 45조원 이상, 40조원 이상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분기 실적이 작년 한 해 실적을 뛰어넘을 정도로 현재 업황이 예사롭지 않은 셈이다.

증권사 반도체 담당 한 연구원은 "회사 내부적으로도 이익이 늘어나는 속도나 규모를 믿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전해진다"라며 "공격적으로 보는 곳은 올해 양사 합산 영업이익이 4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AI 인프라 수요도 여전히 강세다. JP모건 조사 통계에 따르면 2월 기준 엔비디아 H100의 시간당 대여 가격은 2.43달러로 전년

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가 및 국제유가 동향



동기보다 28.6%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H100은 AI 훈련에 투입되는 가장 대표적인 가속기(GPU)다. 전방 AI 작업수요가 대여 가격을 꾸준히 밀어올리는 구조로 풀이된다. 상대적으로 공급 제약이 더 극심한 메모리 가격 인상 역시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런데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전망을 두고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늘고 있다. 중동 사태로 시작된 에너지 쇼크의 파급 경로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증권사 한 리서치센터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보다도 에너지 가격 변동폭이 큰데, 해상 운송체계가 마비되면 공급망 충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본다"라며 "지금 AI나 반도체 산업은 전부 전력 인프라 위에 지어지는 구조라서 장기화 전망에 힘이 실리면 반도체 역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단기적으로는 에너지 가격이 치솟는다고 해서 AI 인프라 투자까지 멈춰 설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불과 1~2개월 주기로도 개별 AI 모델 성능에 대한 평가가 앞치락뒤치락 할 정도로 플랫폼 간 경쟁도 치열하고, 각국 정부 차원 안보·패권 전략에서의 중요성도 갈수록 커지고 있어 투자를 멈출 수 없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이 많다.

사태가 장기화하면 여파가 에너지 가격 변동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현재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의지를 드러내는 동시에 맞은편 카타르까지 공급하면서 해상 에너지 물류와 공급 차질까지 동시에 빚어내고 있다. 수요에 변함이 없는데 물동량만 줄고 가격이 치솟으면 산업생산이 위축될 수 있다. 이 경우 AI 데이터센터나 반도체 설비투자(CAPEX) 사이클에도 간접적인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증권사 화학담당 한 연구원은 "중간재인 원유나 LNG 가격이 치솟아서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수급 자체가 해결이 안 되면 가동중단으로 가야 한다"라며 "길게 보면 반도체 팹(Fab) 증설에 필요한 전력이나 특수가스, 희귀광물 등도 걱정인데, 한번 공급망 차질이 빚어지면 대체 수단을 확보하는 시간이 나 비용 문제가 만만치 않다"라고 말했다.

당분간 중동 정세가 에너지 가격과 해상 물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확인하는 과정이 이어질 전망이다. 반도체 업황이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실적 자체는 건조하지만 전쟁 장기화 여부에 따라 글로벌 투자심리나 공급망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양사 주가도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에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NH투자증권 퇴직연금 결과로 증명합니다

2025
퇴직연금
우수사업자

| 출처: 고용노동부 '25.11월 |

2025
퇴직연금 증권업
우수사업자

| 출처: 고용노동부 '25.11월 |

2024
퇴직연금
우수사업자

| 출처: 고용노동부 '24.10월 |

이제, 연금도 투자다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

[투자유인사건] *가입전 설명 청구 및 상품설명서 약관 필독 *08 이 퇴직연금은 예금지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DC/FP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7억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가 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과세기준 및 방법 향후 변동 가능 *연금회 수령시 세액공제 받은 납입/연금 및 수익에 대해 가산소득세(16.5%) 부과 *DC 퇴직금채원 운용관리/자산관리수수료는 적립금 평잔 구간별 상이하게 부과되며, 가입자 회사가 납입. 단, 가입하는 금융투자상품에 따라 금융투자상품별 보수 발생 *FP-N2 가입금 평잔*에 따라 운용관리수수료(0.06%~0.15%)와 자산 관리수수료(0.07%~0.10%)가 발생하며 연 후취 적립금 평잔 구간별 상이. 단, 가입하는 금융투자상품에 따라 금융투자상품별 보수 발생. 자세한 수수료율은 홈페이지 참고(적립금 평잔*연간 일자별 평가 금액의 평균값, 퇴직금 이전분에 한함) *FP-N2 디아렉트 가입자가 부담하는 운용/자산관리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음. 단, 가입하는 금융투자상품별 보수 발생 *FP-N4 가입자가 부담하는 운용/자산관리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음. 단, 가입하는 금융투자상품에 따라 금융투자상품별 보수 발생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5-05453호(2025-12-31 ~ 2026-12-30)

韓 전력시장 민낯 들춰낸 중동사태… 한전 ‘적자’ 땀질처방 언제까지?

한전, 적자 산업계 전가 후 일부 양보 고민 중에
중동 에너지 쇼크로 무색해진 요금개편 논의
AI·반도체로 산업구조 재편까지 차질 빚을까 우려
전력시장 개편에 중동 리스크 우회까지 모색 필요
한전 자본 보강·비용구조 합리화 없이 달성 어려워

중동 사태는 한국 전력시장 왜곡과 에너지 수급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동시에 들춰냈다. 전력시장 개편 없이 요금정책으로 버티온 상태에서 산업구조 전환과 에너지 수급 다변화까지 동시에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는 분석이다. 당분간 지정학 불안이 이어질 전망이다. 가운데 늘어날 비용에 대한 부담 우려가 각계에서 나온다.

현시각으로 지난 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쟁 종료 가능성을 시사하고 G7도 전략 비축유 공동방출 소식을 내놓으며 국제유가가 다소 안정되고 있다. 전일 장중 배럴당 120달러까지 치솟았던 서부텍사스유(WTI) 선물 가격은 10일 배럴당 87달러선까지 하락했다. 유가가 떨어지자 국내 주식시장 역시 전일 하락폭을 되돌리며 반등했다.

일단 시장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받아들이는 모양새다. 10일 오후 들어 WTI 선물가는 배럴당 90달러 안팎을 오가고 있는데, 당장 전쟁이 종료된 것은 아니지만 완전 봉쇄 가능성까지는 반영하지 않은 수준의 가격대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란이 전면전 없이도 해상 물류 기반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만큼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목소리가 많다.

전쟁의 장기화 여부를 떠나서 이번 사태로 국내 전력시장의 구조적 문제점들이 다시금 조명되고 있다.

정부가 이달 내 마무리하려고 했던 전기요금 체계 개편부터가 무색해졌다는 평이 나온다. 당초 산업용 요금 부담을 일부 낮춰 주되 지역·시간대별로 차등 요금제를 도입하는 게 개편안의 골

자였다. 구조조정을 앞두고 있거나 막 돌입한 석유화학·철강·2차전지 등 전력 집약적 산업들의 원가 부담을 고려하면 한국전력공사가 수익성 일부를 포기하더라도 이 같은 방향으로 개편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컸다. 그러나 배럴당 60달러 선에 머물던 유가가 순식간에 100달러를 넘보게 되며 상황이 뒤집혔다.

발전 원가가 치솟으면 한전의 양보로 산업계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 오히려 시장에선 한전이 지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처럼 전력 도매가격(SMP) 급등으로 적자에 처할 가능성을 따져보고 있다. 그간 요금 인상으로 한전의 이익 체력이 나아진 상태이긴 하다. 그러나 카타르 액화천연가스(LNG) 생산이 제때 정상화하지 못하거나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 이상에 머물 경우 연료비나 전력 구매비 부담이 치솟으면서 또 과거 상태로 회귀할 가능성이 커진다.

가격 변동 리스크를 한전이 홀로 떠안는 구조는 그대로 둔 채 요금체계 손질로 버티온 한계가 재확인됐다는 진단이 나온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2022년 한전 적자가 33조원이었는데 정부가 정치적 부담이 큰 주택용 전기료는 못 올리고 산업계 요금을 70% 이상 끌어올려서 땀질처방을 해왔다”라며 “유가가 60달러 이하로 안정되고 SMP가 떨어져서 한전 이익이 치솟으니깐 이걸 일부 돌려주겠다 게 이번 요금 개편이었는데, 전쟁이 또 터지면서 전부 도루묵이 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큰 문제는 국내 산업구조가 이미 대규모 전환기에 돌입한 상태라는 점이다.

투자업계에선 현재 에너지 불안이 신산업에 미칠 영향을 더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재 각지에 추진 중인 AI 데이터센터(DC) 프로젝트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기존 제조업보다 전력 집약도가 더 높다. 막대한 추가 전력 인프라를 확보하지 못하면 적기에 산업구조 전환이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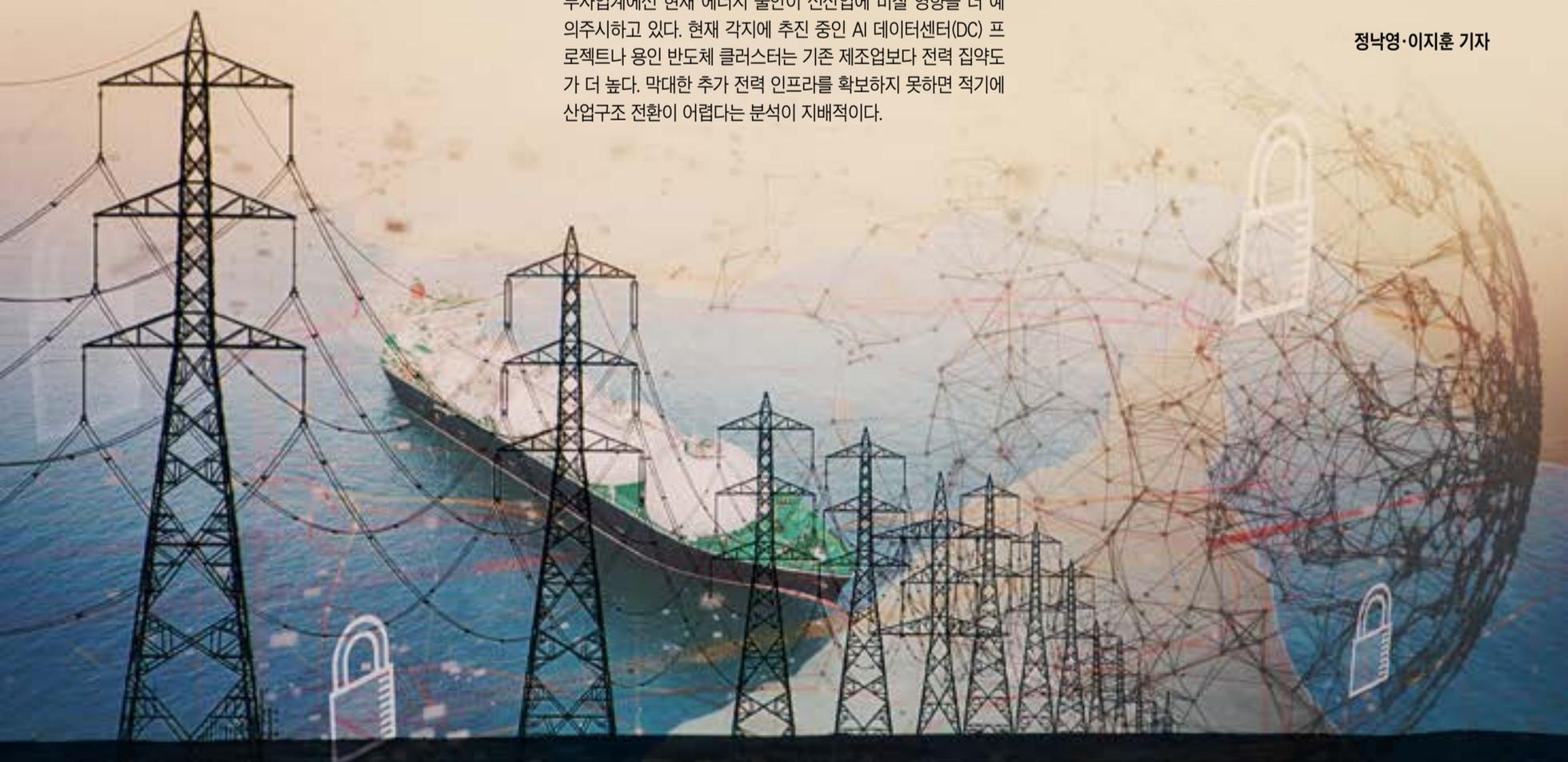
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앞으로 민관 합동으로 2~3년 내에 원자력 발전이나 LNG 발전 비중을 확대하는 동시에 각지 클러스터를 연결할 수 있는 송배전망 설치까지 마쳐야 한다”라며 “제때 인프라를 구축하지 못하면 엔비디아가 약속한 가속기(GPU) 공급 요청도 힘들고, 자체 AI 인프라 확보나 반도체 신규 클러스터 구축, 자율주행, 로보틱스 등 신산업 계획이 줄줄이 차질을 빚게 된다”라고 말했다.

자연히 중동 의존도가 높은 국내 에너지 수급기반부터 전력시장 생산·판매구조까지 순차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원래도 수급처 다변화나 신규 발전원, 송배전망을 구축하는 작업 대부분에 막대한 시간과 자본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는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불안까지 보태진 모양새가 됐다.

대기업 그룹사를 비롯해 국내외 사모펀드(PEF) 운용사까지 적지 않은 민간자금이 전력 인프라 시장 참여를 준비하고는 있다. 그러나 국내 전력시장 최종·단일 구매자 격인 한전 자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전체 투자 사이클이 제대로 굴러가기 어렵다는 진단이 많다. 전력시장의 전반적인 신뢰도나 투자효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최종 수요자 역할을 하는 한전이 재무안전성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인프라업계 한 관계자는 “민자발전 대부분이 LNG 발전이 될 텐데 이쪽 시장은 운반선이나 터미널 등 물리적 병목도 크고 지금처럼 공급 차질이 걱정될 때는 비용이나 수익성 부담이 커진다. 그러면 죄다 한전을 쳐다보게 될 것”이라며 “연료 수급부터 전력 생산, 판매나 인프라 투자 전반에서 각 참여자가 비용 부담을 나눠 질 수 있는 구조로 효율성을 끌어올려야 한다”라고 전했다.

정낙영·이지훈 기자



‘찾잔 속 변화’ 그친 금융지주 이사회… 여전히 ‘교수’ 중심에 ‘정관 개정’도 보수적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이사회 구성을 다양화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지만 실제 변화는 제한적인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 중심의 이사회 구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소비자 전문가 선임도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감독원이 지배구조TF 결론을 앞당기고, 올해 은행권 검사에서 지배구조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금융지주 이사회 운영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지주 이사회 구성과 관련해 교수 비중을 줄이고 금융소비자 및 정보기술(IT) 전문가를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금융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금융권에 따르면 KB·신한·하나·우리금융 등 4개 금융지주 사외이사 가운데 교수 출신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52%에서 올해 40%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여전히 절반에 가까운 수준으로 이사회가 교수 중심 구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신한금융은 사외이사 9명 중 4명이 교수로, 지난해 5명 대비 줄어 들었다. 사의를 표명한 이용국 사외이사와 임기 만료로 사임한 윤재원 사외이사를 대신해 박종복 전 SC제일은행장과 임승연 국민대 교수가 신입 사외이사로 선임된 영향이다.

KB금융은 여정성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가 퇴임하고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위원,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사외이사 교수 비중 줄었지만 여전히 높아 금융소비자 전문가 선임은 기대 이하 사외이사 교체 제한적…지배구조 변화 미미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한 서정호 법무법인 더위즈 대표가 신입 사외이사로 합류했다. 전체 사외이사 가운데 교수 비중은 7명 중 3명으로 작년 대비 1명 줄어 들었다.

하나금융은 이강원 사외이사가 임기 만료로 퇴임하고 최현자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가 신입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이에 따라 전체 사외이사 9명 가운데 교수는 4명으로, 전년(3명)보다 1명 늘었다.

우리금융은 이은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와 박선영 동국대 교수가 퇴임하고 정용건 케이카캐피탈 상무 겸 준법감시인과 류정혜 국가 인공지능 전략위원회 위원이 새롭게 합류했다. 이에 따라 사외이사 7명 가운데 교수는 1명으로 줄었다.

지배구조 개편 강조에도 정관 반영은 제한적

금융당국이 지배구조 태스크포스(TF) 논의 과정에서 회장 연임 시 특별결의 도입 등을 강조했지만 실제 정관에 이를 반영한 금융지주 또한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이달 주주총회에서 회장 연임 시 특별결의 관련 내용을 정관에 반영한 곳은 우리금융이 유일하다. 다만 우리금융 또한 당국이 의도한 회장 ‘연임’시 특별결의가 아니라 3연임 시 특별결의에 해당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개선 여지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른 금융지주들은 지배구조 선진화 TF 결과나 여당에서 추진 중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내용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정관 변경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찬진 금감원장이 관련 제도 정비 이전에도 금융지주들이 선제적으로 반영해 달라는 의사를 밝힌 만큼 금융당국은 TF 결과 발표에 속도를 내면서 금융당국 압박 수위를 높일 전망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올해 은행권 검사에서 지배구조 모범관행 이행 여부를 올해 주요 점검 항목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금융지주 검사에서 이사회 구성과 운영 방식을 보다 꼼꼼하게 들여다볼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배구조 모범관행이 2023년 12월 마련됐고 올해 추가로 보완될 예정인 만큼 기존 내용과 새로 반영되는 사항의 이행 상황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정기검사에서 항목 중 하나로 점검할 수도 있고 특별검사 형태로 이뤄질 수도 있지만 구체적인 방식은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강지수·임지수 기자

4대 금융지주 사외이사 현황

신한금융				KB금융				하나금융				우리금융			
성명	임기 시작	성별	비고	성명	임기 시작	성별	비고	성명	임기 시작	성별	비고	성명	임기 시작	성별	비고
박종복	2026.03	남	신규 선임	서정호	2026.03	남	신규 선임	최현자	2026.03	여	신규 선임	정용건	2026.03	남	신규 선임
임승연	2026.03	여	신규 선임	조화준	2023.03	여	재선임	박동문	2021.03	남	재선임	류정혜	2026.03	여	신규 선임
김조설	2022.03	여	재선임	최재홍	2022.03	남	재선임	원숙연	2023.03	여	재선임	윤인섭	2022.01	남	재선임
배훈	2021.03	남	재선임	김성용	2023.03	남	재선임	이준서	2023.03	남	재선임	김춘수	2025.03	남	
송성주	2024.03	여	재선임	이명환	2024.03	남	재선임	주영섭	2024.03	남	재선임	김영훈	2025.03	남	
최영권	2024.03	남	재선임	차은영	2025.03	여		이재술	2024.03	남	재선임	이강행	2025.03	남	
곽수근	2021.03	남	재선임	김선엽	2025.03	남		윤심	2024.03	여	재선임	이영섭	2025.03	남	
양인집	2025.03	남						이재민	2024.03	남	재선임				
전묘상	2025.03	여						서영숙	2025.03	여					

*2026년 정기주주총회 기준
출처 각 사



역대급 불장에 성과급 잔치… 한투 2000%·미래 800% 등 증권가 ‘기대감 고조’

증시 활황에 주요 증권사 실적 고공행진… 3월 말 역대급 성과급 지급 ‘들썩’
한투 2000%·미래 800%·KB 600% 등 보너스 확산… 산정 기준 따라 수령액 차이
거래대금 폭증에 브로커리지 수익 견고… 변동성 장세 속 실적 랠리 지속 전망

3월 말 주요 증권사들의 성과급 지급 시즌이 다가오면서 여의도 증권가가 들썩이고 있다. 지난해 증시 활황으로 주요 증권사의 2025년 연간 실적이 크게 개선되면서 성과급 규모도 확대될 것 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일부 대형 증권사에서는 관리직 기준 성과급이 기본급의 2000% 수준까지 거론되고 있다.

영업이익 2조 돌파한 한국투자증권, 2000% 초반대 전망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이번 주 내 본사 관리직 기준 전사 경영성과급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가에서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인 1850% 안팎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보다 다소 오른 2000% 초반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최근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관측은 지난해 한국투자증권의 실적 개선에 기반한다. 한국투자증권의 지난해 영업수익은 3조568억원, 영업이익은 2조 3427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82.5% 증가하며 업계 최초로 이른바 '2조 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실적 성장의 배경으로 공격적인 운용 전략을 꼽는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상반기 금리 하락 국면에서 기업어음(CP) 발행을 통한 레버리지를 적극적으로 일으켰다. 이를 바탕으로 S&T(세일즈앤트레이딩) 부문에서 상당한 운용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순영업수익이 사상 처음으로 3조 원을 돌파한 기념비적인 해인 만큼, 한때 예년과 비슷한 2000% 선은 다소 아쉽다는 반응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미래에셋증권 800% 수준…

성과급 시스템 개편에 노사 긴장감은 커져

지난해 실적이 크게 개선된 미래에셋증권 역시 상당한 규모의 성과급 지급이 예상된다. 현재 본사 관리직군 기본급 기준 800% 수준이 거론된다. 미래에셋증권의 지난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1조9150억원, 1조5935억원으로 전년 대비 61.2%, 72.2% 증가했다.

미래에셋증권은 브로커리지(위탁매매) 매출 비중이 높은 사업 구조를 갖고 있다. 지난해 증시 활황으로 일평균 거래대금이 연

초 대비 연말 두 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관련 수익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2025년 별도 기준 순영업수익 가운데 브로커리지 비중은 약 36%를 차지한다.

주가 상승에 따른 기대감도 반영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 주가는 지난해 약 두 배 상승하면서 주가와 연동해 지급되는 이연성과급 대상자들의 기대도 커진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사측이 올해부터 이연성과급의 주가 연동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손질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내부 분위기는 급랭했다. 특히 노조 위원장 및 임원 교체기로 인해 의사결정 공백이 생긴 시점에 기습적으로 공지를 올린 것 아니냐는 의심 섞인 시각이 제기되며 노사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키움증권 '월급 기준' 800% 지급…KB증권은 600~700% 추정

이미 성과급 지급을 마친 키움증권도 높은 수준의 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키움증권은 본사 관리직군 기준 월급의 800% 수준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부분 증권사가 '기본급'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산정하는 것과 달리 키움증권은 '월급' 전체를 기준으로 삼는 구조여서 실제 수령액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키움증권은 연 2회 성과급을 지급한다.

키움증권은 지난해 영업이익 1조4882억원, 순이익 1조115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각각 35.5%, 33.6% 증가할 수 있다.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사업 구조 덕분에 브로커리지 수익이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 매출 대비 브로커리지 비중은 2025년 기준 50.17%로 전년도 46.9%보다 확대됐다.

KB증권의 본사 관리직군 기본급 기준 성과급은 600~700% 수준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9116억원, 순이익은 6823억원으로 모두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다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총당금 부담으로 영업이익 1조원 돌파에는 미치지 못했다.

성과급 수준을 두고 내부에서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B증권은 KB금융지주의 100% 자회사로

주요 증권사 2025년 영업이익 및 성과급 추정치

증권사	영업이익	전년 대비 성장률 (YoY)	성과급*
한국투자증권	2조3427억원	82.5%	2000%
미래에셋증권	1조9150억원	61.2%	800%
키움증권	1조4882억원	35.5%	800%
KB증권	9116억원	16.8%	600~700%
신한투자증권	4885억원	73.3%	200%

*본사 관리직군 기본급 기준(키움은 월급)

출처 각사

중간배당과 연말배당이 모두 지주로 귀속된다. 이와 관련해 내부에서는 성과 보상 수준에 비해 지주 배당이 많다는 지적도 일부 제기되고 있다.

신한투자증권, 실적 회복에 2년 만의 성과급 기대감 고조

신한투자증권은 최근 몇 년간 성과급 지급이 제한됐던 만큼 올해 성과급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고 있다. 2023년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총당금 적립, 2024년에는 ETF(상장지수펀드) 유동성공급(LP) 부서에서 발생한 약 1300억원 규모 손실 사고 영향으로 직원들이 성과급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2025년에는 영업이익 4885억원(전년 대비 73.3% 증가), 당기순이익 3816억원(113% 증가)을 기록하며 실적이 크게 개선됐다. 이에 따라 본사 관리직군 기준 약 200% 수준의 성과급 지급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규모 자체는 타사보다 크지 않지만 최근 실적 회복 흐름을 고려하면 내부 기대도 형성되고 있는 분위기다.

증권가 전체가 이처럼 들썩이는 근본적인 이유는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이다. 이러한 '거래대금 효과'는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유례없는 폭락장을 기록했던 지난 5일에도 투매 물량과 저가 매수세가 맞물리며 코스피 일일 거래대금이 62조 원을 넘어서는 등 거래 규모가 크게 줄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변동성 장세에서도 증권사의 브로커리지 수익 구조는 견고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수록 거래량은 오히려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 증권사 입장에서는 나쁠 것이 없는 환경"이라고 설명했다.

임지수·최수빈 기자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신한은행 IRP



전문가의 관리가 수익률의 차이니까

퇴직연금전문 신한은행

- 분기별 연금 정기관리
- 증장기 수익률 관리
- 자산규모별 맞춤 관리
- 생애주기에 따른 투트랙 관리

*이 퇴직연금은 예금저축보육법에 의해 해금보조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성품과는 별도로 1인당 7억원까지 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성품 한도 보호됩니다. *개인연금의 수수료는 후회연0%~0.45%(연)입니다. (수수료에 대한 상세내용은 신한은행인생계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중도해지 수수료는 없습니다. 단,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 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미납의 행위로 수령하시는 경우 세액공제 반환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가산소득세(1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출도 인출은 연금저축 퇴직금(가입성 퇴직금)에 특별공도 인출시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당사는 해당 퇴직연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셔야 합니다. *이 금융상품을 구입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계약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9조(신용)에 따라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받을 수 있습니다. *7대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계약서를 꼭 읽어보거나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광고는 일반 및 내국인에게만 따른 관련 정보를 가쳐 제공됩니다. *영업감사인 시간상사(주) 제2025-14845-1호 (2025.10.29~2026.10.28)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5-04624호(2025.10.29~2026.10.28)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동행 신한은행

훈훈했던 로펌 배당 시즌, 내년에도 파이 크기 유지될까

연초 주요 대형 법무법인의 파트너들은 따뜻한 배당 시즌을 보냈다. 자본시장 침체와 법률자문 업계의 저성장 우려가 이어지는 와중에도 법무법인들이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내며 외형 성장을 이뤄낸 덕분이다.

내년에도 후한 배당 정책이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인건비 증가, 고객들의 눈높이, 인공지능(AI)의 침투 등 저성장을 가리키는 요소들이 적지 않다. 당장 파트너들의 배당에 힘쓸지, 수년 후를 대비한 투자에 나설지 경영진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주요 법무법인들은 1월 말 이후 파트너 배당을 단행했거나 앞두고 있다. 배당에 한해 매출에서 인건비와 임대료 등 비용을 제하고 남은 재원을 나누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각 법인의 정책, 개인의 매출 기여도와 경영진의 정성평가에 따라 개인 편차는 있다.

그러나 매출이 성장했기 때문에 주요 법인 파트너들은 대체로 전년보다 늘었거나 비슷한 배당을 받은 분위기다. 김앤장법률사무소의 독주 속에 태평양, 세종, 광장, 율촌 등 빅5가 모두 4000억 원대 벽을 넘어섰다. 대부분 두자리수 성장률을 보였다.

일부 법무법인은 상여 재원이 수백억원가량 늘어 더 따뜻한 시기를 보냈다는 후문이다. 론스타와의 중재(태평양), 통신사 개인 정보 유출(세종), DIG에어가스 인수(광장) 등 주목도 높은 일을 맡은 파트너들의 배당 규모에 주목하는 시선도 있다.

한 대형 법무법인 파트너는 “모두가 배당에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작년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만족스러워 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법무법인들이 파트너 배당을 늘린 것은 반길 만한데 이런 흐름을 계속 이어갈 기반이 갖춰진 것이라 보긴 어렵다. 실적은 경영 전략보다 고객들의 자문 수요나 정산 시점에 따라 들쭉날쭉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정산이 늦어지면 그 다음 해에 반사 효과를 보기도 한다. 일부 법무법인은 작년에 배당을 많이 하지 못했다가 올해 다시 늘렸다. 인력 관리 속에 배당을 받아갈 파트너들의 수가 줄어 개개인이 가져갈 파이가 더 커진 곳도 있다.

대형 로펌들 외형 성장 속 파트너 배당 온기 자문 수요와 정산 시점 따라 실적 변동성 커 AI로 업무 효율 올렸지만 수수료는 인하 압박 비용 증가 속에 배당 및 투자 규모 두고 고심

구성원들의 불만은 상존한다. 경영진이 어느 분야를 더 중시하느냐에 따라 배당 특성이 달라질 수 있다거나, ‘랜덤박스’처럼 결과를 점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배당 시즌 직후엔 이직을 꿈꾸는 변호사들이 늘어난다. 이런 틈을 비집고 경쟁사 인력을 빼오려는 움직임도 나타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법무법인들이 배당의 기본 전제인 매출을 계속 키워나갈 수 있느냐, 그리고 비용을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느냐다.

법률자문 시장은 매년 위기를 논하면서도 꾸준히 성장해 왔다. 그러나 상위 5개사의 매출이 3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이전 같은 성장 기울기를 유지하긴 쉽지 않아 보인다. 대기업의 사고나 총수의 형사 사건을 천수답처럼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SI의 침투도 이제는 가벼이 보기 어려운 문제다. 아직 SI가 판례와 법률 용어의 낱알까지 이해하는 단계는 아니지만, 사건 검색이나 소장 초고 작성 등 분야에는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다. 열 명이 하던 일을 한두 명이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고객인 기업의 법무실도 잘 파악하고 있다. 들어가는 인력과 시간이 줄어든 만큼 법률 자문 비용을 낮추려고 한다. 이런 흐름 속에서 대형 법무법인만 할 수 있는 업무 분야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다른 법무법인 파트너는 “SI가 고도화하면서 적은 인력으로 보다 수월하게 일을 할 수 있게 됐다”며 “고객들의 기준도 높아진 만큼 어떻게 이전 수준의 자문료를 받을 수 있을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주요 법무법인들은 적극적인 영입을 통해 실적을 끌어올려 왔다. 중형사들도 생존을 위해 대형화와 합종연횡을 꾀하고 있다. 대형 고객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도 앞으로 인력을 일정 규모로 유지해야 한다. 신입 변호사에 일을 맡길 필요성은 줄었는데 그렇다고 채용을 놓을 수는 없다. 모두 비용 증가 요소다.

경쟁사 변호사와 전문가를 영입하는 부담은 늘고 있다. 새로 모시려면 기존보다 훨씬 좋은 조건과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 정착 영입 후에는 이전 법무법인에서 실적의 절반만 해도 성공이라고 본다. 매출이 늘겠지만 2-3년간은 기존 구성원들의 배당에 부정적 영향이 갈 가능성이 크다.

과거 미국 로펌 듀이앤르보프(Dewey & LeBoeuf)는 경쟁사에서 스타 변호사를 빼오기 위해 막대한 보수를 보장했다. 기존 파트너들이 보수 증액을 요구하며 내용을 겪었다. 결국 인력 이탈로 수익 구조가 붕괴했고, 해체 수순을 밟았다. 국내서 이런 극단적인 사례가 나타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내부의 불만은 나타날 수 있다.

그렇다고 지금 인력 영입 경쟁을 멈추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영입을 멈추면 매출과 시장 내 존재감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경영진 입장에서 배당을 줄여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할지, 아니면 파트너 배당을 늘려 ‘현재’를 즐기지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

임기 만료를 앞둔 경영진은 파트너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라도 배당 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무실 임차 계약이 끝나가는 법무법인 경영진의 고민은 더 깊다. 임차료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 파트너 배당은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또 다른 법무법인 파트너는 “실적이 좋은 곳에선 기존에 유보자금이 많은 곳에선 배당 시즌 분위기는 대체로 나쁘지 않다”며 “현재의 파트너들끼리 배당을 후하게 나눠가지는 것은 좋지만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장기적 성장동력을 찾는 데 애를 먹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상호·이상은 기자

중동發 특수로 대전환 맞은 韓 방산... 생산능력이 못따라간다

국내 방위산업이 중동 정세 변화 속 전환점을 맞고 있다. 이란 사태를 계기로 한국산 방공 체계의 성능이 확인되며 수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주요 방산업체들의 생산 라인이 이미 높은 가동률을 유지하고 있어, 급증하는 수요를 단기간에 따라잡는 것이 최대 과제로 떠올랐단 평가다.

국내 방산 기업들의 주가는 크게 상승한 상태다. LIG넥스원은 3개월 기준 저점 대비 120%, 한국항공우주(KAI)는 68%, 현대로템은 23% 뛰었다. 이란 전쟁 여파로 증시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방산주들은 연이어 상승세를 나타냈다. 특히 육·해·공 방산 체계를 두루 갖춘 한화그룹은 그룹사 시가총액 합계가 LG그룹을 넘어서며 사상 처음 재계 순위 4위로 올라섰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 한화오션 등 방산 계열사의 주가가 크게 상승한 영향이다.

중동 전쟁에서 아랍에미리트(UAE)에 배치된 천궁-Ⅱ가 실제 가동돼 이란 미사일을 요격했다는 소식이 방산주를 밀어 올렸다. UAE에 배치된 천궁-Ⅱ의 요격 성공률은 96%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의원은 “이는 미국 방공무기 패트리엇도 달성하기 어려운 수치”라고 밝히기도 했다.

현지에서는 요격미사일 소모가 빠르게 늘어나며 공급 부족(쇼티지) 우려가 커진 평가다. 천궁-Ⅱ 개발에는 LIG넥스원(미사일·체계 종합), 한화시스템(레이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발사대·차량) 등이 참여했다.

중동 국가들은 방공무기 조기 인도 요청에 나섰다. UAE는 한국 정부에 천궁-Ⅱ 포대를 기존 계약된 납기보다 앞당겨 공급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생산 일정을 고려해 포대 대신 요격미사일 우선 공급을 논의했고, 그 결과 천궁-Ⅱ(M-SAM2) 요격 미사일 30발이 UAE에 조기 인도된 것으로 파악된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UAE는 한국 정부에 요격미사일뿐 아니라 여러 무기 체계를 함께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천궁 수출 및

천궁-Ⅱ 실전 요격에 중동 관심 집중 요격미사일 쇼티지 속 조기 납품 요청 한화그룹, 방산주 급등에 재계 4위 안착 다른 방산업체도 기대감 속 주가 급등 수요 대비 생산능력 부족은 큰 과제

조기 인도 가능성도 함께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UAE에서 급한 상황으로 요격미사일뿐 아니라 천궁을 포함해 같이 다른 무기체계들도 추가적으로 납품받을 수 있을지 요청했다”고 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중동 내 구체적 수출 국가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UAE가 지난 2021년 천무를 구매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근 중동 국가들 역시 주요 무기체계의 조기 납품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증권가에선 ▲한국 방산업체들의 가격 협상력이 높아질 수 있단 점 ▲일부 물량 조기 납품에 따라 매출 인식 시점이 빨라질 수 있단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결국 생산능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한국 방산 업체들의 최대 과제가 됐다. 군비 수요에 비해 국내 방산업체들의 생산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방산 기업들의 주가는 수출 기대감에 힘입어 급등했지만 실제 실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조기 납품과 추가 수주가 뒤따라야 한다. 현재 생산 여력이 제한적인 만큼 단기간에 공급을 확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방산 빅4 가운데 일부 업체들은 생산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현장 인력을 24시간 교대 근무 체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부담이 상당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방산업계 관계자는 “현장에서 부담이 상당히 크다”며 “납기 일을 당겨달라는 독촉이 이어지고 있지만 화약이 빨리 경화되는 것도 아니고 속도가 단기간에 빨라지긴 쉽지 않다. 추가적인 설비 투자 없이 생산량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현재 주요 방산 업체들의 생산 라인은 대부분 90%가 넘는 가동률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생산 능력 확대와 함께 핵심 부품 및 소재 공급망 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럼에도 한국 방산업체들은 우선 중동 세일즈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미 수출을 계획 중인 곳들을 중심으로 계약 가능성을 점검하고 있다. LIG넥스원은 천궁Ⅱ를 도입한 UAE와 사우디, 이라크를 중심으로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L-SAM) 수주를 위한 협상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K9 자주포, 보병전투장갑차 레드백 등을 묶어 사우디와 패키지 계약을 협상 중이다. 한국항공우주도 차세대 전투기 KF-21을 UAE와 사우디에 납품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고, 현대로템은 K2 전차 이라크 수출을 타진하고 있다.

이한결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란 사태가 진정된 이후에도 중동 지역 긴장감은 단기간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중동 국가들이 국방력 강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내 방산 업체의 중동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중동 분쟁이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초기에는 단기간 내 충돌이란 분석이 많았지만, 분쟁이 격화하며 전쟁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단 분석이다. 한 증권가 방위산업 연구원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지만, 초기에 생각했던 것보다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고 했다.

이지윤 기자





2026년, 하나증권이 대한민국의 희망을 발행합니다

하나금융그룹
하나모두 성장 프로젝트
함께 만드는 내일의 가치

“
하나증권 발행어음이
모험자본 투자로
손님과 혁신기업의
내일을 키웁니다
”



하나증권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발행어음>에 대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상품<발행어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상품<발행어음>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 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발행사(AA, 2025.08.13 한국신용평가)의 신용위험(부도, 파산 등)에 따른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적격등급은 AAA/AA/A/BBB 각 +,0,-순으로 구분) ※발행어음수익률은 입금 시 회사가 고시하는 약정수익이 적용되며, 이는 시장금리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6-00024호(2026.01.06~2026.12.31)CC브랜드 260106-0096

국민성장펀드 출범에 섰법 제각각... 기업은 오픈런, LP·GP는 눈치게임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가 본격 집행 국면에 들어서면서 자본시장 곳곳에서 '정책자금 대기열'이 형성되고 있다. 기업들은 저금리 자금 지원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투자 프로젝트를 들고 줄을 서고 있고, 금융지주들은 생산적금융 실적을 채우기 위해 관련 투자를 늘리고 있다.

사모펀드(PEF) 운용사들은 자(子)펀드 출자 공고를 기다리며 투자 일정 조정에 나선 모습이다. 국민성장펀드가 실제 자금 집행 단계로 넘어가기도 전에 시장의 투자 흐름과 일정이 먼저 바뀌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될 만한 딜' 들고 정책자금 문 두드리는 기업들

올해 1월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먼저 자금공급 승인을 받았고, 2월 말에는 삼성전자 평택 5라인(P5) AI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프로젝트에 2조5000억원, 이수스페셜티케미컬 울산 차세대 이차전지 소재공장에 1000억원의 저리대출이 의결됐다. 제도 설명 단계에 머물던 국민성장펀드가 실제 돈이 나가는 사업으로 전환되는 국면이다.

이후 시장은 자연스럽게 다음 순번을 찾는 데 몰두하고 있다. 이미 공개된 7개 주요 프로젝트를 두고서도 "누가 먼저 들어가는냐", "어느 트랙으로 실적을 쌓느냐", "올해 안에 잡힐 물량이 얼마나 남아 있는냐"가 시장의 주된 관심사가 됐다.

가장 먼저 움직인 쪽은 기업들이다.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은 국민성장펀드를 새로운 조달 옵션으로 올려놓고 투자 구조를 재검토하는 분위기다. 이차전지, 바이오, AI, 데이터센터, 반도체 소부장 등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업종에서 이런 흐름이 두드러진다.

통상 수천억원에서 많게는 5000억원 이상이 필요한 투자라면 2~3대 정책성 자금 조달 가능성만으로도 프로젝트 구조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민간 자금만으로는 조달 비용이 높거나 투자자 설득이 쉽지 않았던 기업일수록 관심이 크다.

투자업계에서는 SK넥실리스의 3000억원 규모 전환우선주(CPS) 조달 건도 국민성장펀드와의 접점을 검토한 사례로 거론된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런 개별 건들이 곧바로 집행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우선순위와 프로젝트 성격에 따라 순번을 기다리는 구조라는 인식이 강하다. IB업계에서는 SK넥실리스 관련 구조가 올해 하반기 이후에야 윤곽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대형 PEF 관계자는 "국민성장펀드 취지에 맞는 딜을 산업은행에 가져가도 당장 먼저 검토해야 할 에너지 인프라 건들이 여럿 있다는 분위기였다"며 "올해 집행분은 사실상 상당 부분 윤곽이 잡혀 있고, 나머지 기업들은 순번을 기다려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일부 기업에는 국민성장펀드가 일종의 '시간 벌기' 수단으로 작용하

정책자금 본격화 앞두고 시장 움직임 선행 기업은 투자안 들고 정책자금 대기열 형성 금융지주는 생산적금융 실적 채우기 분주 PEF는 자펀드 공고와 투자 트랙 눈치보기 '올해 집행분' 놓고 자본시장 경쟁 가열

기도 한다. 민간 투자 유치가 쉽지 않은 기업들이 정책자금 가능성을 근거로 투자 일정 조정을 시도하는 사례도 포착된다.

인프라 투자 확장세...금융지주는 '실적 채우기' 고민

국민성장펀드는 대형 인프라 투자와 결합하는 방식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SK하이닉스의 울산 반도체 산업 클러스터 관련 투자에서는 국민성장펀드와 민간 인프라펀드 자금을 결합하는 구조가 논의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KB금융이 조성한 약 1조원 규모 인프라펀드 가운데 약 5000억원이 투입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국민성장펀드가 들어가면 민간 자금 유치 구조도 훨씬 수월해지는 측면이 있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추고 투자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지주와 은행, 보험 등 LP 성격의 기관들은 또 다른 고민을 안고 있다. 이들에게 국민성장펀드는 단순한 정책 협조를 넘어 생산적금융 실적과 맞물린 과제가 됐다.

최근 금융권에서는 중소기업 대출까지 포함해 생산적금융의 외형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첨단전략산업 관련 인프라나 시설투자는 대부분 실적 관리 대상으로 분류되는 분위기다. 전력·신재생에너지·난방 인프라, 데이터센터, 공장 설비투자 등이 주요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요즘은 첨단전략산업을 위한 시설투자면 대부분 생산적금융으로 보는 분위기"라며 "국민성장펀드와 생산적금융을 묶어 집행하려는 구상도 많다"고 말했다.

문제는 실적과 수익성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삼성전자 평택 P5 지원만 봐도, 금융권 안에서는 "원래 삼성은 자체

자금으로도 충분히 추진할 수 있었던 투자"라는 말이 적지 않다. 정책금융 상징성을 위해 시중은행까지 참여한 측면이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금융지주들은 국민성장펀드 건수와 생산적금융 목표를 채우기 위해 시설대출과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있지만, 저리 구조가 강해질수록 마진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삼성 P5처럼 상징성이 강한 사업은 참여의 미가 있지만 수익은 결국 다른 투자에서 보전해야 하는 구조"라며 "정책 참여와 수익성 사이에서 균형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출자사업 공고만 기다리는 PEF... "VC가 더 유리할 수도"

PEF 업계의 섰법은 더 복잡하다. 우선 간접투자 영역에서는 자펀드 운용사 지위를 노리는 하우스들이 적지 않다. 그렇다고 모든 하우스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아니다.

최근 펀드 결성을 시작했거나 산업은행 내부에서 국민성장펀드 운용 방향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운용사들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대다수 PEF들은 자펀드 공고와 기준을 기다리며 대응을 미루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산업은행이 내달 중 국민성장펀드 관련 출자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학연금도 당초 계획보다 출자 공고 시점을 늦춰 산업은행 일정에 맞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일부 공제회 역시 조직 개편 등의 영향으로 일정이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일부 PEF들은 투자 검토 중이던 딜을 잠시 멈추는 모습도 나타난다. 국민성장펀드 지원 대상이 될 경우 투자 구조와 조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PEF 업계에서는 국민성장펀드가 사모투자 시장에 특별히 유리한 구조는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혁신기업 투자를 확대하는 정책 방향을 강조하면서 벤처투자(VC) 시장에 유리한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이야기다.

한 중견 PEF 관계자는 "신규 자금이 크게 늘어난 것이라기보다는 산업은행 기존 정책자금이 국민성장펀드 틀로 재편된 측면이 있다"며 "오히려 이번 정책 환경에서는 벤처캐피탈 쪽이 더 유리하다는 시각도 있다"고 말했다.

결국 현재 자본시장에서 국민성장펀드는 거대한 성장 사다리이자 동시에 건수와 순번의 게임이 되고 있다. 기업들은 기대를 안고 찾아오고, 금융지주들은 실적 일정과 수익 확보 사이에서 선별적으로 참여한다. PEF들은 자펀드와 직접투자 트랙을 두고 입지를 넓히려 한다.

시장 참가자 대부분은 국민성장펀드의 정책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고 있다. 다만 현장의 공기는 산업 생태계 육성이라는 장기 목표보다 "올해 안에 어떤 건수가 잡히느냐"는 단기 경쟁에 더 가까운 분위기다.

한설희·선모는 기자



관찰은 메자닌은 증권사 먼저? IMA·발행어음 확대에 투자 경쟁

IMA·발행어음 자금 확대...메자닌 시장에도 변화 조짐
코벤펀드 열풍 떠올리는 시장...메자닌 투자 경쟁 심화 가능성
신기사 조합·리테일 상품 구상...증권사-운용사 협업 확대

증권사들의 IMA(종합투자계좌)와 발행어음 확대를 계기로 메자닌 시장의 투자 지형에도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아직 증권사가 메자닌을 대거 흡수하는 단계는 아니어도, 증권사 운용 자금이 빠르게 늘면서 시장에서는 메자닌을 둘러싼 수급 구조가 달라질 가능성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메자닌은 전환사채(CB), 교환사채(E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주식과 채권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 구조화 금융 상품이다. 일정 수준의 이자 수익을 확보하면서 주가 상승 시 전환 이익을 기대할 수 있어 대표적인 중위험·중수익 투자 자산으로 꼽힌다.

그동안 코스닥 메자닌 시장은 전문 운용사 중심 구조로 형성돼 왔다는 평가다. 상장사들이 수십억에서 수백억원 규모로 발행하는 메자닌 물량을 전문 운용사들이 담아 펀드로 운용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일부 중소형 증권사와 비제도권 투자조합도 주요 투자자로 참여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대형 증권사들도 메자닌 시장을 관심 있게 들여다보는 분위기다. 최근 리테일 자금이 크게 늘어난 데다,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중위험·중수익 상품에 대한 투자 수요가 늘고 있다는 점도 배경으로 꼽힌다.

발행어음과 IMA로 조달한 자금의 일정 비율을 모험자본에 투자해야 하는 제도 역시 큰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내부적으로 운용해야 할 모험자본이 늘어난 만큼 메자닌 등 구조화 자산을 검토할 유인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발행어음·IMA 조달액의 25%에 해당하는 규모를 모험자본에 투입하도록 단계적으로 상향(2026년 10% → 2027년 20% → 2028년 25%)하도록 의무화했다. 모험자본에는 중소·벤처기업 주식, BBB 이하 하이일드 채권, VC 펀드, P-CBO 등을 포함한다.

최근 메자닌 투자 검토 건 또한 예년보다 크게 늘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발행사들 사이에서도 차입과 유상증자 사이의 '중간 대안'으로 메자닌을 우선 검토한다는 분석이다.

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통상 연초는 메자닌 비수기로 감사 의견이 나와야 메자닌 발행이 활발해지는데, 그럼에도 올해 초 검토한 투자 딜이 체감상 예년 대비 두 배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에 운용업계 일각에서는 우량한 메자닌 딜이 증권사 내부 운용으로 먼저 소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IMA와 발행어음은 모험자본을 일정 부분 담아야 하기 때문에, 관찰은 메자닌 딜이 나오면 일단 내부 북(book)으로 담자는 의사결정이 나온다"며 "벌써부터 관찰은 메자닌 물량이 증권사에서 먼저 흡수되고 있던 얘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현재 분위기가 정책 펀드 자금이 대거 유입되며 메자닌 수요가 급증했던 당시 상황을 떠올리게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지금 IMA와 발행어음으로 증권사들이 메자닌을 담는 모습을 보니, 코벤펀드가 한창 열풍일 때, 투자 자금이 급증하면서 메자닌과 비우량 사채의 가격 경쟁이 심화됐던 시기가 떠오른다"고 말했다.

다만 운용업계에서는 증권사가 메자닌을 대거 흡수하기에는 아직 역량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메자닌 투자는 단순히 자

금만 있다고 가능한 시장이 아니라 딜 발굴과 기업 네트워크, 실사 경험 등 전문성이 중요한 영역이라는 이유에서다.

메자닌 시장은 딜 규모가 수십억에서 수백억원 수준으로 비교적 작고, 여러 투자은행(BI)을 통해 파편적으로 공급되는 경우가 많다. 꾸준한 발행사 네트워크와 투자 경험을 가진 전문 운용사가 기존 주요 플레이어로 활동해 있던 이유로 꼽힌다.

이에 증권사와 메자닌 전문 운용사와 협업하는 방안이 떠오르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주요 메자닌 운용사들이 최근 증권사 유관 부서와 관련 상품 구조를 논의하며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최근 주요 메자닌 하우스들은 증권사와 메자닌 투자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증권사 신기술사업금융(신기사) 부서와는 공동 투자 구조를 만드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운용사는 딜 소싱과 투자 판단을 맡고, 증권사는 자금 모집과 상품 구조 설계를 담당하는 방식이다.

한 메자닌 전문 운용사 대표는 "모험자본을 소화하려면 좋은 기업 발굴이 필요한데, 메자닌 운용사와 협업해 딜 소싱을 해결하고, 이를 리테일에 연결해 수요를 공략하는 형태로 대형 증권사 신기사 부서와 조합 상품을 구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최수빈·선모은 기자



AI 3대 강국의 가능성을 키우는 LG

다양한 가능성이 AI를 만나
무한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LG는 AI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AI 경쟁력을 만들어갑니다



LG 디스커버리랩
중·고등학생 대상 연간 3만 3천명 이상, 체험형 AI 교육 프로그램 운영



LG 에이더스
청년 대상 연간 5천명 이상, 산업현장에 특화된 실용형 AI 전문가 육성



LG AI대학원
국내 최초 교육부 인가, 글로벌 AI 인재 육성을 위한 사내 대학원 학위과정

미래, 같이

